

알제리 약점은 '체력'... "후반 헤딩골을 노려라"



홍명보 감독



자신감 장전

2014 브라질월드컵 첫 경기 러시아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19일 오전(한국시간) 베이캠프인 브라질 이구아수의 페드로 바소 경기장에서 가볍게 런닝을 하는 등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권 싸움 약하고 후반 체력저하로 급격히 무너져 초반 공격 막고 후반 역습 강행...장신 김신욱, 조커로

‘제공권 장악으로 알제리 수비벽 뚫어라’ 한국 축구 대표팀의 브라질 월드컵 2차전 상대 알제리가 18일(한국시간) 브라질 벨루오리존지에서 열린 벨기에와의 1차전에서 제공권 싸움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알제리는 이날 1-0으로 앞서던 후반 25분에 벨기에의 키 194cm 장신 미드필더 마루안 펠라이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헤딩 동점골을 내줬다. 결국 이 한 방에 상승세가 꺾인 알제리는 이후

10분 만에 다시 한 골을 허용하며 1-2로 역전패했다. 경기가 끝난 뒤 바히드 할릴호지치 알제리 감독은 “펠라이니는 유럽에서도 가장 뛰어난 헤딩 능력을 가진 선수”라며 “그가 투입되면서 후반 경기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펠라이니가 공중에서 압도하는 사이에 우리 선수들은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알제리 수비수들이 키가 작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수비진의 핵심인 주장 마지드 부게라(레퀴아)의 키가 190cm나 되고 다른 수비수들도 대부분 185cm 안팎이다. 하지만 1차전에서 펠라이니는 득점 상황 외에도 위협적인 장면들을 몇 차례 연출하는 등 큰 키를 바탕으로 한 무력시위를 심심치 않게 펼쳤다. 따라서 홍명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도 키 196cm의 장신 공격수인 김신욱(울산 현대)을 후반 교체 카드로 활용할 만하다. 또 알제리는 1차전에서 체력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후반에 워낙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을 한 탓도 있었지만 후반 내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후반 25분 이후로 두 골을 허용했다. 할릴호지치 감독은 “선수들이 후반에 페이스

가 푹 떨어졌다”고 진단하며 “몇몇 선수들은 다리에 쥐가 난다며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아쉬워했다.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다리에 쥐가 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차전 패배로 마음이 급한 알제리 선수들의 체력을 전반에 어느 정도 소모시켜놓고 나서 후반에 승부를 거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셈이다. 최근 한국은 튀니지, 가나 등 아프리카 팀들과의 평가전에서 0-1, 0-4로 연패했다. 월드컵 본선에서 다시 만난 아프리카 팀인 알제리를 상대로 홍명보호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방심은 금물

네덜란드·한국 등 득점후 바로 실점...경기흐름 급변

유독 골이 많이 터지고 역전 승부도 잦아 축구팬들을 즐겁게 만드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의 또 다른 경향은 ‘득점 직후 실점’이 많다는 점이다. 19일(한국시간)까지 벌어진 조별리그 1~2차전 경기 가운데 팬들의 뇌리에 남은 명승부 중에서는 시원한 골의 여운을 즐길 틈도 없이 바로 만회골이 폭발해 순식간에 흐름이 극단을 오간 사례가 많았다. 이날 열린 네덜란드와 호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양팀이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간격으로 두 차례나 골을 주고받아 말 그대로 경기장 분위기를 들뜨게 놓았다. 네덜란드의 아린 로빈(바이에른 뮌헨)은 전반 20분 중앙선 부근에서 볼을 따내서는 폭풍 같은 질주를 선보였고,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트를 터뜨려 선제골을 신고했다. 그러나 로빈의 환상적인 드리블을 음미할 TV 중계방송의 리플레이가 끝나자마자, 호주의 팀 케이힐(뉴욕 레드불스)이 그 이상으로 멋진 골을 선보였다. 그는 선제골을 내준 지 1분 만에 센터서클 부근에서 넘어온 긴 패스를 왼발 눈스톱 발리슛으로 때려 동점골을 만들었다. 후반에도 호주가 9분 밀러 에디나(크리스털 팰리스)의 페널티킥으로 2점짜리를 뽑아 ‘장군’을 부르자 네덜란드는 고작 4분 만에 로빈 판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

드)가 강력한 왼발 슈트로 2-2 동점을 만들고 ‘명군’을 불렀다. 이렇게 숨 가쁜 골 공방전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또 다른 명승부로 꼽히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경기에서는 클라우드오 마르키시오(유벤투스)의 전반 35분 선제골로 이탈리아가 리드를 잡은 지 불과 2분 만에 잉글랜드가 대니얼 스테리지(리버풀)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미국은 가나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1-0으로 앞서던 후반 37분에 앙드레 아유(올랭피크 마르세유)에게 통한의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4분 만에 존 브루스(헤르타 베를린)의 결승골이 터져 짜릿한 승리를 손에 넣었다. 서로 골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C조에서는 코트 디부아르가 일본에 0-1로 뒤진 후반 19분 윌프리드 보니(스완지시티)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데 이어 아직 어리둥절하던 상대를 한 번 더 궁지로 몰아 2분 만에 역전 골을 넣기도 했다. 한국도 이런 흐름의 피해자가 됐다. 18일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근호(상주 상무)의 후반 23분 중거리슛으로 선제 득점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6분 만에 혼전 속 동점골을 허용하고 아쉬운 무승부에 그쳐야 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이모저모

○~각국 대표팀이 체력 회복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탈리아는 음식 조달과 관리에 있어서도 켈피언급이다. 이탈리아 대표팀은 브라질에 오면서 파마산 소스, 올리브유, 프로슈토햄 등은 물론이고 생수까지 챙겨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2010년 남아공대회때 현지 요리를 고충했던 미국 대표팀은 전속 요리사를 대동했다. 개막에 훨씬 앞서 요리사와 영양사를 보내 대표팀이 목을 호들의 주방과 식당을 확인했고, 클린스만 감독의 관리 아래 채소의 색깔까지 확인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멕시코는 칠리페퍼 등 강렬한 향신료를 잔뜩 가져오는 등 각국은 음식에 세심한 신경을 쏟고 있다.알제리와의 일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은 러시아전 이후 감지 짜개와 소고기구이로 원기를 회복했다. ○~칠레를 응원하는 팬들이 칠레와 스페인의 경기를 보려고 경기장을 파손하고 무단 입장하려다가 저지당했다. 19일 B조 칠레와 스페인의 경기를 앞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 취재기자들이 모인 경기장 내 국제축구연맹 미디어센터의 임시 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칠레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최소 85명의 무리 벽을 밀어낸 것이다. ESPN은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말을 인용, 이들이 표 없이 경기를 보려고 난입한 칠레 팬들이었다고 전했다. FIFA와 지역 월드

“체력은 밥심에서”...각국 보양식 열전 “칠레 경기 보자” 팬들 경기장 무단 입장



칠레 팬들이 칠레와 스페인 경기가 벌어진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 무단 입장을 시도하다 미디어센터 임시벽이 무너졌다. <TV 캡처>

컵 조직위원회는 공동 성명에서 “최소 85명이 경기장 무단 입장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관중석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첫 경기에서 패배하며 위기에 몰린 그리스 축구 대표팀이 내부 갈등까지 겪고 있다. 이오아니스 마니아티스와 요르키오스 자벨라스는 지난 17일 팀 훈련 도중 말다툼을 벌였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리스 프로축구 리그에서 맞수 관계인 올

림피아코스 소속의 두 선수 간의 충돌은 마니아티스의 불명에서 비롯됐다. 자벨라스가 올리는 크로스의 질이 나쁘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곧 말다툼이 벌어졌다. 요르키오스 카라구니스(폴로)가 나서서 말했지만 마니아티스는 그리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겠다고 화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연합뉴스